

무역 전문가로 나아가는 길

유은영 / 무역영어 1급



무역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영어, 무역영어

약 2개월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술 연수 프로그램에 통역 및 의전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좋아해서 독학으로 쌓아온 실력을 스스로 검증하고자 지원하여 각국 고위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알찬 연수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통역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좋아한다고 해서 다 잘 해낼 수 없으며 전문분야로 들어갈수록 분야에 따른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연수를 진행하는 동안 신 농업기술로 재배된 품목들이 수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역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접했을 때 과연 내가 이 분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던 영어로 도전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이 많아 힘들었던 수험기간 끝에 무역영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관세와 전반적인 무역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습득했습니다. 이후 취업을 위해 다양한 곳에 지원서를 제출하던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진행하는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해외파견 청년인턴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턴이야말로 제가 가진 지식과 좋아하는 언어를 활용하여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영어를 좋아한다고 해도 어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었기에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기죽지 않고 제가 돋보일 수 있는 장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찾는 인재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무역 지식을 겸비한 언어 능력자를 선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 관련 미팅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무역 지식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경쟁하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전문적으로 언어를 공부하였지만 반면 무역, 특히 수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전략으로 면접을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면접 당일, 예상한 대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어학과 관련된 경험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문에서 통역 및 의전을 2개월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의사소통에 있어 유창한 언어도 중요하지만 전문분야에 대해서 외국어로 소통할 경우 그 분야에 맞는 전문적인 용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무역영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파견될 국가의 현재 수입 및 유통이슈와 연계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포워더와 함께 세관에 제출할 검역증, 원산지 증명서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따로 공부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어로 무역 수출에 있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용어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풍부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수선발의 벽을 넘게 해준 무역영어

다양한 파견 국가들이 있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단 두 곳뿐이었고 선발인원 역시 소수여서 합격을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원한 국가로 많은 지원자가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합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역영어 1급 자격증과 무역실무와 관련된 저의 경험들 덕분에 우수한 인재들을 뒤로하고 선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 국가에 파견되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현지의 유통업자들과 미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을 도모하고자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보통 제품의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역을 하는 데에 있어 현장에서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표준형 용어가 있고 실무용 용어가 따로 있어 비즈니스 미팅 때 많은 의사소통의 혼선이 있지만 무역영어 1급을 취득한 덕분에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미팅을 진행하니 현지 바이어 분들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지의 수입업자와 함께 수출 계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영어 1급 자격증 덕분에 무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